

서울대학교 면접 및 구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상의 기본 개념 이해를 토대로 단순 정답이나 단편 지식이 아닌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며 주어진 제시문과 질문을 바탕으로 면접관과 수험생 사이의 자유로운 상호 작용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인문학]

※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생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면 알수록 많은 환경정책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얼핏 보서는 상관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동식물에게 유난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종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는 친환경을 표방하는 많은 농장과 그곳의 관리체계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다. 그들 농장은 많은 생물의 서식처인 나무와 관목과 죽은 나무를 잃음으로써, 물리적 구조뿐 아니라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종들의 관계 또한 상실했다. 그런 공간에는 생명의 거미줄이 거의 몇 줄 남아 있지 않다.

(나)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플라스틱 빨대는 일회용품 중에서 대표적인 퇴출 대상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하는 정책은 빨대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충돌한다. 빨대의 기본 형태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입구 부분이 휘어지는 플라스틱 주름 빨대는 환자들을 돕기 위해 처음 발명되었다.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친환경 빨대로 제공되는 종이 빨대, 쌀 빨대, 옥수수 전분 빨대 같은 것들은 플라스틱처럼 부드럽게 휘어지지 않아 불편하고, 뜨거운 음료에서는 쉽게 분해되므로 사용이 쉽지 않다. 플라스틱 주름 빨대를 굵은 금속 빨대 등으로 대체하는 것 역시 신체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주름 빨대를 비롯해 현대에 대량 생산되는 빨대는 부드럽고 얇은 플라스틱으로 제조되므로, 신체를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 너희 인간들은 코로나 때문에 한 명만 죽어도 호들갑을 떨면서, 우리 동물은 수천만 마리 땅에 묻고 손을 툭툭 털더라! 자기 새끼는 끔찍이 아끼면서 남의 새끼는 끔찍하게 죽이더라! 우리의 모성애를 무시하는 당신들은 그 고매한 자식 사랑으로 무얼 했는가. 미래의 하늘에 탄소를 뽐고 미래의 땅에 분노 폐수 살처분 시체를 버리고 미래의 숲을 마구 베고 미래의 바다를 플라스틱으로 채운 것 말고?

[문제 1] 환경정책을 수립할 때 유념해야 할 점에 대한 (가)와 (나)의 입장을 비교하시오.

[문제 2] (다)의 화자를 만났을 때, (가)와 (나)의 글쓴이가 자신의 입장을 각각 어떻게 변호할지 논하시오.

활용 모집단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경제학부 제외) 간호대학 사범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윤리교육과, 체육교육과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아동가족학전공) 자유전공학부
문항해설	◦ 오늘날의 생태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제시문에 담겨 있는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판별하여 설명하라는 문제다. (가)에는 생태계 전체를 고려할 때 환경정책이나 환경시설 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생태주의적 입장이 드러나 있다. (나)는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소수자를 고려하지 않는 환경정책의 맹점을 지적하는 글이다. ◦ (가)는 생태계의 복잡성과 자립성을 강조하는 생태주의의 입장에서, 인간의 환경정책이 의도한 것과 반대의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의 글쓴이는 환경정책 이 오히려 자연 생태계의 자율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나)의 글쓴이 는 플라스틱 빨대 퇴출 정책이 노인이나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환경정책을 비판한다. (다)는 동물들이 내는 목소리다. 동물들의 눈에 비친 인간은 이기 적이고 무책임하여 공생의 윤리를 실천하지 않는 생명체다. 동물의 입장에서 (가)의 환경 정책 비판은 일면적이고 부분적이다. 즉 친환경 정책에 분명 맹점은 있겠지만 진정한 문제는 인간중심주의의 극복 여부에 달려 있다. 반면 (나)의 환경정책 비판은 인간중심 주의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장애인과 노약자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플라스틱 사용을 호소하는 인간들은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가)와 (나)의 입장 에서 얼마나 논리적이며 창의적인 답변을 내놓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출제의도	[문제 1] 각각의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문해력과 두 제시문을 연결하여 사고하는 응용력을 평가함 [문제 2] 각각의 제시문에 드러난 글쓴이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제3의 입장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응용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평가함
교육과정 출제근거	[개념] 생태계, 생태주의, 환경파괴, 환경정책, 사회적 약자, 접근성, 가치의 충돌, 동물의 권리, 공생의 윤리, 인간중심주의 [출처]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3.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자료출처

[교과서]

김동환 외, 《국어》, (주)교학사, 128-141, 162, 209-245, 386-405쪽
 류수열 외, 《국어》, (주)금성출판사, 64-91, 279-311, 374-403쪽
 고형진 외, 《국어》, 동아출판, 261-289, 378-389쪽
 신유식 외, 《국어》, 미래엔, 134-153, 303-331쪽
 고형진 외, 《독서》, 동아출판, 28-41, 42-73, 108-145쪽
 방민호 외, 《독서》, 미래엔, 22-41, 74-93, 134-173쪽
 한철우 외, 《독서》, 비상교육, 20-39, 40-67, 102-121, 142-159쪽
 서혁 외, 《독서》, 신사고, 22-69, 118-143쪽
 이삼형 외, 《독서》, 지학사, 54-73, 98-107, 118-151쪽
 박영목 외, 《독서》, 천재교육, 24-63, 96-131쪽
 석은동 외, 《심화 국어》, 상문연구사, 29-41쪽
 육근록 외, 《통합사회》, 동아출판, 14-17, 42-69, 100-131쪽
 정창우 외, 《통합사회》, 미래엔, 12-17, 36-63, 94-125쪽
 박병기 외, 《통합사회》, 비상교육, 10-17, 38-67, 08-127쪽
 이진석 외, 《통합사회》, 지학사, 12-29, 42-73, 104-133쪽
 구정화 외, 《통합사회》, 천재교육, 12-21, 40-71, 106-137쪽
 모경환 외, 《사회문제 탐구》, 전라북도교육청, 10-19, 32-43쪽
 차우규 외, 《생활과 윤리》, (주)금성출판사, 55-66, 137-149, 161-170쪽
 정창우 외, 《생활과 윤리》, 미래엔, 61-65, 134-147, 160-169쪽
 김국현 외, 《생활과 윤리》, 비상교육, 60-66, 138-150, 163-172쪽
 변순용 외, 《생활과 윤리》, 천재교육, 58-69, 138-151, 164-173쪽
 황인표 외, 《윤리와 사상》, 교학사, 11-18쪽
 정창우 외, 《윤리와 사상》, 미래엔, 11-18쪽
 류지한 외, 《윤리와 사상》, 비상교육, 10-27쪽
 박찬구 외, 《윤리와 사상》, 씨마스, 15-24쪽
 변순용 외, 《윤리와 사상》, 천재교육, 10-15쪽

[기타]

조지 몽비오(김산하 역), 《활생》, 위고, 2020
 김초엽, 김원영, 《사이보그가 되다》, 사계절, 2021
 동물 임시 연대, 《동물들의 시국선언》, 2020